



▣ 단기선교팀과 함께

무더운 여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가운데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노원성진교회 최지훈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저희 소식 전해드립니다.

【단기선교팀 사역을 마치고】

지인 선교사님 덕분에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온 의료선교팀이 저희 교회에 다녀갔습니다. 전무후무한 인원이 이틀간 섬겨준 덕분에 온 마을이 잔치날이었습니다. 의료봉사, 바자회, 마당놀이, 주일예배등의 시간은 저희 부부가 처음 겪는, 말그대로 ‘하나님의 큰일’이었습니다. 다시 만날 기회가 없어 아쉽지만 짧은 기간동안 저희에게 많은 도전과 도움을 주고 귀국했습니다. 이처럼 아직 선교지 교회는 한국 교회의 동역과 후원으로 활기를 띵니다.

여전히 올해도 변함없이 부산 호산나교회에서 다녀갔습니다. 매년 오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저희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처럼 선교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귀한 일에 동역자로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도 저희는 이렇게 두 번의 한국 교회 단기선교팀을 맞이하고 다시 홀로서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저희 반석교회와 예수교회가 점점 더 성장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특특이 차량운행을 시작했습니다】

GEM선교회(세계교육선교회 대표회장: 하상선 목사)에서 저희에게 특특이 두 대를 지원해주셔서 교회사역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근 마을마다 차량운행을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늘어났고, 다른 마을에 단체로 전도를 나가는 일에도 사용합니다. 백선교사와 완전전도사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달란트시장에 함께 해주세요】

한국 물품은 어디서나 인기입니다. 이런 현상을 잘 활용하면 복음전도에 효과적이겠다 싶어 달란트 시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일단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교회에 꾸준히 와야 하는데, 요즘 저희의 계획대로 달란트 티켓을 받기 위해서 애어른 할 것 없이 예전보다 많은 인원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백선교사는 다시 복음전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며, 새로운 사람들 한사람한사람 아이컨택을 하며 어린아이한테 밥 떠먹이듯이 복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물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동역자님들 덕에 안쓰고 안입는 물건들을 정리해보시면 어떨지요^^

우체국 5호 박스(가장 큰 사이즈) 16개 정도의 부피가 해운업체용어로 1CBM입니다. 캄보디아까지 1CBM 운송비가 280불이라서 부담이 되긴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열정을 쏟는 한국 교회의 저력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오래된 기도제목】

저희가 매일 교회에 타고다니는 차량은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잦은 수리와 오래된 엔진으로 유지비가 많이 들다보니 차량교체를 위해 오래 전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몇해를 묵혀온 ‘해묵은 기도제목’이라서 동역자님들도 간과하실 것 같아서 다시 기도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여기며 묵묵히 계속 기도중입니다.

기숙형 제자반 운영과 교육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관 건축을 놓고 오래 전부터 기도해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건축헌금의 70-80%가 채워진 만큼 이제 곧 첫삽을 뜰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건축을 진행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몸이 축나고 심지어 늙는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2021년도에 반석교회당을 건축하면서 절대 건축은 다시 하지 않는다고 다짐을 했지만, 제자양육과 여러 가지 필요 때문에 결국 또 건축을 하게 됩니다.

‘미워도 다시한번’이라고 할까요



▣ 특특이 운행



▣ 나이는 못속이는 애마

▣ 기도제목

1. GEM선교회(세계교육선교회)에서 지원해주신 특특이를 통해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항상 안전운행 하도록
2. 이번에 다녀간 캄보디아 단기선교단원들에게 주신 은혜가 지속되어 기도동역자로 헌신이 이어지도록.
3. 유효연 선교사가 수술 후 회복이 잘 되도록
4. 달란트시장에 많은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도록



▣ 단상이 된 본당 출입문



▣ 인원이 너무 많아서 본당 출입문을 단상으로 하고 예배드림



▣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메콩강 선상위에서 백선교사 부부를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들과 함께



▣ 권사님이 나눠주신 한국산 냉음료가 맛있어요



▣ 금강산도 식후경, K-푸드 간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 컵라면 배달까지



▣ K-미용



▣ 한복입고 경복궁 앞에서





▣ 돌아가는 아이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준비하고



▣ 이장님 댁에서, 이장님을 축복합니다.

▣ 복음을 전하고 축복기도까지,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머이' 반 석교회 어린이

